

3. 基幹通信事業<sup>2)</sup> 進入 制限의 철폐

- (內容) 政府, 내년부터 基幹通信事業의 진입 制限을 완전 철폐할 방 침임을 천명
- (短期 效果) 초기에는 通信 市場 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사업성 과 관계없이 민간 기업들의 進出 러시가 일어날 것
- (長期 效果) 그러나 競爭이 激化됨에 따라 통신 시장은 合併과 提携 의 흐름속에서 자본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갈 것임

올해에는 신규 통신 사업에 다 수 사업자 선 정, 내년에는 각종 진입 제한 철폐

- (內容) 政府, 기간통신사업의 본격적인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천명
  - 政府는 지난 7월 4일 「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 본정책방향」을 발표하였음
    - 주요 내용은 ①통신사업 경쟁체제 확립 ②한국통신의 경쟁력 확보 ③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여건 조성임
    - 이는 ‘先국내경쟁 後국제경쟁’의 원칙하에 가능한한 조 기에 전면적인 국내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97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
  -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‘통신사업의 경쟁체제 확립’과 관 련된 내용으로 기간통신사업에 대해 다수 사업자에의 사업 허용과 각종 진입제한의 철폐를 골자로 하고 있음

< 통신사업 경쟁 확대 계획 >

95년	96년	97년 이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 현행법  체제하에서  국내경쟁  확대</li> <li>·  신규  사업에  복수로  사업자  선정  (개인휴대통신(PCS),  주파수공용통신(TRS),  발신전용이동전화(CT-2),  무선데이터통신)</li> <li>·  기존  사업에  사업자  추가  선정(국  제전화,  무선통신기사업,  회선임  대사업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 전면적인  국내경쟁  체제  구축</li> <li>· 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을  개정,  사업  허가  신청에  있어서  정부의  사  전  공고  방식을  폐지하고  지분  제한  제도도  개선</li> <li>·  시외전화,  위성통신서비스의  신  규  사업  허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 단계적  국제경쟁  확대</li> <li>·  WTO  기본통신협상(96년  4월  끝날  예정)의  결과에  따라  97  년 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을  재개  정하여  98년부터  국제  경쟁체  제  구축</li> </ul>

2) 기간통신사업은 시내·시외·국제 전화와 차량·휴대 전화, 무선통신기 사업 등 유무선망 을 통해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사업을 말한다.

-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통신산업은 그 중요성과 잠재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.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민간 기업들의 이 분야에의 진출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음. 이제 이번 발표로 민간 기업들의 기간통신사업에의 진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.

삼성은 전화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, LG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업에 주력

○ (企業 動向) 많은 민간 기업들, 이전부터 통신 사업에의 진출을 위해 준비해 옴

- 그동안 조만간 진입제한이 철폐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많은 민간 기업들이 기간통신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해왔음
- 삼성의 경우는 일찍부터 전화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해 옴
  - 올해 초 제2 시외전화 사업자 선정시 한전과 제휴하여 시외 전화 사업에의 진출을 시도
  - 시베리아 지역의 전화망 구축 및 전화 사업에 참여하여 경험 축적
  - 통신사업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그룹 차원의 태스크포스 팀 구성을 오래 전에 구성
  - 최근 미국의 개인휴대통신(PCS)용 주파수 경매에 참여 추진
- LG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보여줌
  - 현재 데이콤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임. 앞으로 지분 제한이 폐지되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 지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
  - 여의도 지역에 광케이블망을 구축하여 주문형 비디오(VOD), 홈쇼핑, 전자신문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려는 여의도 커뮤니티토피아(YCT) 프로젝트를 추진
- 기타 기업들도 이미 통신 사업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임
  - 선경은 한국이동통신의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코오롱과 포철은 신세기이동통신의 최대 주주임
  - 대우는 주파수 공용 통신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아는 이 분야에의 진출 의사를 이미 표명하였음

국제전화, 주파수 공용 통신, 개인 휴대 통신 분야에서 진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것임.

CATV사업과 통신사업의 겸업 및 중소기업의 합병이 진전

- (效果) 초기에 민간 기업들의 진출 러시가 있거나 그후에는 합병과 제휴가 주된 흐름으로 될 것임
  - 앞으로 당분간은 이들 통신 사업 분야에 민간 기업들의 진출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
    - 이는 지금 당장의 사업성을 따지기보다는 이후 전후방 관련 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엄청난 통신 사업에 일단 발을 들여놓고 보자는 의도 때문임
    - 특히 상대적으로 자본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국제 전화와 주파수 공용 통신, 그리고 시장 잠재력이 큰 개인 휴대통신 사업에 경쟁적인 진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
    - 특히 올해에는 동일 기업의 복수 사업에의 신청이 금지되어 있어 중소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의 진출이 예상됨
  - 그러나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현재와 같은 독과점 및 요금 통제하에서의 고수익 현상은 사라질 것이고 서비스의 차별화 및 망의 고속화 경쟁이 벌어질 것임. 따라서 자본력 및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자들은 도태되거나 합병될 것임
    - 결국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다양화 및 융합화, 망의 초고속화, 사업자들과의 제휴와 합병의 진전 등이 나타날 것임
    - 이러한 경향에 수반하여 추가적인 제도 정비도 불가피해질 것임. 이러한 제도 정비의 과제로는 사업 영역 제한의 폐지, CATV업자의 통신 사업 허용, 방송 사업에서의 규제 철폐 등임
    - 위와 같은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통신 산업은 통신, 방송, 정보서비스 등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종합 통신 서비스 회사들에 의해 주도될 것임

(김창욱)